

브레멘음악대 발언문

2019년 여름

정인상 발언문

저는 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다른 개념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서 아주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권리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치를 모른다는 편견을 가지기 이전에, 언제 한 번이라도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해준 적이 있는지, 삶에서 정말 중요한 정치라는 영역이 단순히 시험을 보는 수업 하나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에 필요한 학문인지 가르쳐준 적이 있는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저는 이런 정치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기회를 어른들이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실제 현실 정치와 맞물려 선거가 있으면 함께 후보자에 대한 토론도 하고, 모의투표도 하는 식의, 말그대로 '정치 연습'을 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이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투표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들을 뽑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지만 청소년들도 청소년이 필요한 법안들이나 다양한 복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분들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의견이 원활히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변화가능성이 존재가능성을 믿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소년을 포함한 이 사회의 소수자들의 의견들을 듣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어져야 사회는 변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민형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자유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민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기자분들 앞에 서서 발언을 하는 이유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은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그것을 잘 배우고 자라날 필요가 있고, 국가는 이것을 인식하여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정치에 참여해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정치에 대해서 따분한 수업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치라는 학문을 배우고, 삶에 투영해보니,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험에만 집중하는 교육 때문에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안학교를 다니기 이전에 제도권 학교를 다녀봤었는데, 그때 사회 시간에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 시험을 보기 위한 수업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더 개념이나 이론을 잘 암기 하과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정치에 대한 생각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따분하고 지루한 분야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에 어떤 역할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곧 있으면 사회에 나가야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살아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참정권 또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업시간에 처음 본 영상, '어떤 19금'이라는 제목의 지식채널e 에서는 해외의 다양한 정치교육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에서 저보다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도 실제 현실 정치와 맞닿아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 모의 투표를 해보고 그 이전에 후보자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저렇게 공부하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공부하면 실제 정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게 교육이 점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에 대해 배운다면 그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 사회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환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자유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받는 세상이, 앞으로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긴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청소년은 아직 더 배워야 할 때이니 투표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듣게 됩니다. 저희가 1차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그런 의견들이 참 많았고요.

청소년은 투표할 필요 없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직 청소년의 입장으로 이것이 정말 불합리한 소리라고 느껴집니다.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정말 많은 불편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정치인이 필요하고, 또 이런 의견을 듣고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인은 단 한 번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을 위해 목소리를 내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 투표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 더 배워야 해! 다 때가되면 하는거야!' 라고요. 아주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직 부족하고,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더 배울 수 있는것과 아예 무지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표와 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은 복잡한 수학공식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자 실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당사자로서 우리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되면 하는건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고고 19.9년동안이나 살다가 20살이 되니까 갑자기 투철한 투표정신과 참여정신으로 투표에 앞장서는 바른시민이 될지,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이 되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배울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등의 제스처를 어른들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시민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실제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줄

국회의원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미성숙하고 무지한 의견이라 단정하고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알못'이 아닙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엽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자유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열여덟 김도엽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앞에 찾아온 이유는, 청소년 참정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저희 프로젝트를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당 가입, 피선거권 등 청소년의 참정권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듯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은 '민주적인 시민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시민을 키운다는 이 명제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의문이 참 많습니다. 제가 배운 정치학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는 '참여'였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정치에 많은 부분에서 참여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시민이 되려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며 비판도 해보고 비판도 받아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춰야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치에 참여하여 사회가 바뀌고 변화한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민주시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집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을 키우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다양한 집회에 참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저희처럼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참정권을 주장하는 등 나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이러한 활동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아직 몰라.', '정치를 알아서 뭐 해.', '하라는 공부나 제대로 해.' 와 같이 청소년들은 부족하고 미숙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제대로 들여다보면 청소년은 정치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정알못? 적어도 청소년들은 정알못이 아니라 정알못이 되는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잘 가르쳐야 하는 게 어른들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른들과, 특히 정치인들은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대한민국의 민주시민, 즉 국민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청소년의 존재를 알게 하는 방법의 하나가 청소년에게 투표권, 즉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당사자인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치인의

공약에는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 들어갈 것이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연령하향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이 투표권을 갖는 것이 두려운 이들의 방해의 움직임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청소년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사회가 비로소 민주주의가 정착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